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앙과 과학 그리고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

유 경 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 I. 서론

21세기에 들어선 지 불과 20여 년이 막 지날 무렵,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Corona Virus Disease 2019, 이하 “코로나19”로 통일함)로 인해서 충격 속에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여 ‘팬데믹’(Pandemic)이 선언될 정도로 코로나19는 종교, 정치, 경제, 과학을 망라하고 그동안 인류 사회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normal)의 시계를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sup>1)</sup>로 돌려놓았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바이러스의 발현 책임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되어가고,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봉쇄 정책(Lock down)은 경기 침체를 초래하였다. 바이

---

1) 포스트 코로나를 “후기 코로나”로 명명할 수 있으나, 필자는 ‘포스트’(post)가 일반 명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로 한다.

리스 정책과 관련하여 정치의 주도권 쟁투와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과 연관된 증상주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넘쳐나는 확진자를 두고 치료의 우선순위에 따른 노인 연령층 배제와 아시아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을 증오하는 인종 차별의 문제도 심각하다.

종교의 일상도 코로나19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인체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코로나19의 높은 감염력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의 방역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교회도 주일 예배를 온라인(online)으로 전환하였지만, 정부의 공중 보건 정책이 지나친 종교 억압으로 비쳐서 반발하는 기류도 없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의 공중 보건 접근 방법과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의 가치를 표현하는 교회의 대응에는 차이가 있다. 과학은 형식적으로는 그 어떤 이념과 이해관계를 넘어 치료제 개발로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감당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세계 국가들도 백신 참여에 공조하고 있고, 각 국가의 연구소들도 백신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다.<sup>2)</sup> 일반적으로 과학이 가설과 실험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이론적 체계를 세우는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신의 존재와 창조, 그리고 부활과 같은 초월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주제에 접근한다.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는 과학의 계몽적 이성과 공공 영역에서의 신앙적 책무와의 조화로 나름 적절하게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과학과 종교 간의 긴장은 지속할 것이다.

이 논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집중하고자 한다. 과학과 종교적 가치에 대한 충돌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과학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을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신학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3)</sup> 니버의 관점을 재조

2) 지난 2020년 4월 24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 개발 국제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백신 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소들의 이름도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 WHO, "Public statement for collaboration on COVID-19 vaccine development," 2020년 4월 16일, 2020년 5월 19일 접속, <https://www.who.int/news-room/detail/13-04-2020-public-statement-for-collaboration-on-covid-19-vaccine-development>.

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니버는 현대 과학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지나친 낙관론을 금하였다. 이는 계몽주의적 이성에 대한 과도한 맹신을 경계하고 종교의 근본적 가치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니버는 과학과의 거리 두기를 통하여 종교가 추구하여야 할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였다. 과학과 종교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당시 자유주의나 근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과학의 시대에 종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였다. 셋째, 니버는 기독교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공공신학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니버 당시 과학 정치와 같은 개념은 없었지만, 니버의 사상에는 종교를 포함한 사회 과학과 철학의 본래 이상을 통하여 공공 영역에서 신학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 해법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이와 같은 니버의 통찰력은 이 시대 기독교가 코로나19를 놓고 신학이 어떻게 과학을 이해하여야 할지 방향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 논문의 한계는 니버의 신학에서 그가 이해한 과학의 논지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니버 신학의 중심인 인간과 도덕의 문제, 정치 윤리, 사랑과 정의, 그리고 니버식의 기독교 변증법에 대한 이론들은 세세하게 다루지 아니하였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학과 종교와의 관계를 니버식의 관점에서 조명한다는 점을 밝힌다.

## II. 니버에게 과학이란 무엇인가?

코로나19가 세계에 미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코로나19를 검

3) 참고로 니버는 그의 저서에서 '종교'(religion)와 '기독교'(Christianity)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필자도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단어를 문장에서 사용할 때 기독교를 염두에 둔 것임을 밝힌다.

체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전염자 추적, 격리와 치료의 과정을 제시한 과학의 역할로 나름대로 방어하고 있다. 이제 백신 개발이 있기까지 과학계에 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지대하여질 것이다. 현재 세계는 국제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에 앞으로 과학적 연구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sup>4)</sup>

라인홀드 니버가 그의 저서들을 통하여 논지로 삼은 과학은 일반적으로 수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순수 과학을 토대로 발전한 자연 과학과 종교나 정치의 가치 체계를 다루는 사회 과학을 망라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신학도 사회 과학의 분야에 속하여 잘못된 사회적 가치를 수정하고 보완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니버는 이해하였다. 니버가 판단할 때 자연은 19세기 이후 응용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에게 통제되기 시작하였고<sup>5)</sup>, 현대(modern) 세계란 “과학의 시대”, 또는 “이성의 시대”이다.<sup>6)</sup> “과학과 기업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권력과 열정을 압도하는 이성의 승리”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니버는 설명한다.<sup>7)</sup> 니버는 근대 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신정통주의의 관점에서 이성과 신앙을 적절하게 시대에 맞추어 변증하는 학풍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의 과학에 대한 이해는 첨예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재도 여전히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근본적인 통찰력을 주고

4) WHO의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를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환자의 폐렴 치료 중에 발견하였다고 특정하고 있다. WHO, “WHO Timeline - COVID-19,” 2020년 4월 27일, 2020년 5월 19일 접속, <https://www.who.int/news-room/detail/27-04-2020-who-timeline---covid-19>.

5)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2. 이하 필자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니버의 주요 저서를 아래 사이트에서 원본을 확인하여 'pdf file'로 연구하였음을 밝힌다. URL= <https://archive.org/search.php?query=Reinhold%20Niebuhr> (최종접속: 2020년 5월 19일). 참고로 이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니버의 저서 외 자료들은 별도로 표기함을 밝힌다.

6) Ibid., 2-3.

7)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26. 니버의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는 그의 저서 원본이 아닌 페이지 표기가 없는 일반 'plain text'이므로 인용표기는 pdf 해당 페이지를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plain text' 전체 분량은 99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pdf 자료는 Religion Online에 있으며 Harry and Grace Adams에 의하여 제공되었다. URL=<http://media.sabda.org/alkitab-2/Religion-Online.org%20Books/Niebuhr,%20Reinhold%20-%20The%20Irony%20of%20American%20History.pdf> (최종접속: 2020년 6월 3일).

있다고 필자는 이해한다.

니버는 과학을 역사가 조성한 다양한 가치 체계의 맥락 안에서 파악하여야 하고, 과학이 가치 중립적인 이론적 단순화를 통하여 복잡한 논쟁을 증재할 수 있는 학문으로 이해하였지만, 그런데도 과학이 인간의 학문인 한, 유한한 인간의 실존과 이기적인 사회 공동체의 속성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 자체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관한 니버의 관점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니버는 과학이 인간 문명에 유용한 학문임을 강조하면서도 과학의 정체성은 역사적 가치 체계 안에서 중층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니버는 동양 문화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희랍 문명에 기반을 둔 르네상스가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온 점에 대하여 동의한다.<sup>8)</sup> 니버 당시에 과학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문화 과학(cultural science)은 심리학으로 이해되었으며, 그전에는 철학이 인간의 문제를 탐구하는 데에 주된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 있다.<sup>9)</sup> 니버는 과학이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주목을 받는다고 보았는데, 하나는 “세세하게 경험한 관찰”이고, 다른 하나는 “수학적 계산”으로서 이를 통하여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보았다.<sup>10)</sup> 이러한 경험과 계산에 의하여 제시되는 결과를 통하여 인간

8)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325. 니버는 이와 같은 관점에 대하여 뎀퍼드(Lewis Mumford)를 인용하고 있다. Lewis Mumford, *Technics and Civilization*, 참고로 니버는 희랍 철학의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하였는데 하나는 “자아”(self)와 “정신”(mind)을 구분하지 못하여 “진정한 자아가 정신”이라고 착각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인간의 열정(passion)과 같은 것은 이성에 종속되며, 다른 하나는 역사관으로서 역사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보아서 역사의 발전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한 점이라고 비판한다.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5), 40.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는 니버의 저서 원본이 아닌 페이지 표기가 없는 일반 ‘plain text’이므로 인용표기는 pdf 해당 페이지를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참고로 ‘plain text’ 전체 분량은 173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pdf 자료는 Religion Online에 있으며 Harry and Grace Adams에 의하여 제공되었다. URL=<http://media.sabda.org/alkitab-2/Religion-Online.org%20Books/Niebuhr%2C%20Reinhold%20-%20The%20Self%20and%20the%20Dramas%20of%20History.pdf> (최종접속: 2020년 6월 3일).

9)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79.

은 미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sup>11)</sup>

니버는 과학과의 거리 두기를 통하여 과학이 주장하는 ‘객관적’인 지식의 근거는 그 지식을 평가하는 역사관에서 결코 객관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며, 역사 내 작동하는 시대적인 징조를 파악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 지식과 달리 모든 역사적 형태의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sup>12)</sup> 이는 “역사적 사건들과 가치를 해석”하려면 “자신과 타인의 이익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인과 집합”, 그리고 “역사의 의미에 대한 우리들의 해석”과 연관이 된다고 본 것이다.<sup>13)</sup> 이러한 니버의 관점은 과학이 형식적으로는 객관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이지 않고 역사의 체계 안에서 그 의미가 파악되어야 한다는 중층적 해석을 전제하며, 과학으로서의 학문과 학문 공동체, 과학적 발견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 체계와의 연관하여야 하고, 나아가 과학적 발견이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도덕적인 의무를 진 학문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니버는 따라서 과학이 제 역할을 하려면 과학자는 오히려 역사가와 같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자신들이 과학적 지식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4)</sup>

둘째, 과학은 복잡한 논쟁을 제한적이거나 중재하는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니버는 파악한다. 니버는 과학이 “순수 이성에 의하여 모순의 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스스로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sup>15)</sup> 이러한 지적은 니버가 과학이라는 체계 안에 작동하는 인간의 본성

10) Ibid., 101.

11) Ibid.

12)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2.

13) Ibid.

14)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5), 40.

15) Ibid., 129-130.

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니버는 인간의 본성과 연관하여 정치와 종교, 그리고 도덕의 가치 체계를 아우르는 사회 과학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존 듀이(John Dewey)의 관점을 받아들여 사회 과학은 자연 과학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존 듀이에게서는 “우리의 야망적인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다고 지적한다.<sup>16)</sup> 그런데도 니버는 전반적으로 과학은 사회적 분류를 일반화하여 그 쟁점을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사회적인 분류에서 논쟁 중인 당파들에는 도덕이 요청되는데, 도덕은 올바른 교리와 상징, 그리고 정서적으로 강한 단순화가 필요하다.”<sup>17)</sup> 니버는 과학 집단에게 “선전을 최소화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sup>18)</sup>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이익 집단 간 타협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만, 집단적인 이익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그나마 과학은 그러한 분쟁을 해소하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과학 자체는 다양한 과학적 규율의 상치하는 증언에 의하여 문화에 제기되어 온 불일치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다.”<sup>19)</sup> 니버가 볼 때 과학적 사고는 여전히 문화를 이끄는 합리성을 제시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제한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기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sup>20)</sup>

셋째, 복잡한 문제를 합리적이며 단순화함으로써 해법을 제시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과학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궁극적인 실존 의미를 파악하는 종교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니버는 파악한다. 니버는 과학의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철학과 순수 과학이

16)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36), xiii-xiv.

17) Ibid., xv.

18) Ibid., xvi.

19) Reinhold Niebuhr,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The Hazen Pamphlet, USA, 1945), 8.

20) Ibid., 8.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니버에 따르면 철학은 종교적인 신화를 현실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존재의 현상을 최대한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입장에 선다.<sup>21)</sup> 그러나 이러한 철학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다다른 결론은 여전히 궁극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니버는 파악한다. “과학은 의심의 여지없이 철학에서 걸러진 최초의 원리들의 의미를 보다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하지만, 생의 궁극적인 주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못하거나,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거저된 해법을 제시한다.”<sup>22)</sup> 니버는 그 예로 순수 과학이 응용 과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예로 들고 있는데, 과학이 그 본연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핵물리학과 원자 폭탄의 제조”가 분리되지 못하는 예처럼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sup>23)</sup> 결국 과학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세계적인 핵의 분쟁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아이러니이며 계몽과 이성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과연 무엇인지 의문시되는 것이다.<sup>24)</sup> 따라서 “순수 과학은 준거에 있어서 항상 대중적이며 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삶에 의미의 궁극적 원천을 언급하는 문화 안에 있는 수직적 경향을 표현할 수 없다.”<sup>25)</sup>고 지적한 니버의 관점은 과학의 깊이, 즉 과학 철학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과학이 문화 안에 있는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원리와 실용성의 조합으로 자연을 지배하는 것처럼 인간 생명의 문제를 경시하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는 의학이 인간에게 헛된 내적 평온을 약속하는 것처럼 과학은 허구가 될 수 있

21)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Harper & Brothers, 1935), 7. 니버의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는 그의 저서 원본이 아닌 페이지 표기가 없는 일반 ‘plain text’이므로 인용표기는 pdf 해당 페이지를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plain text’ 전체 분량은 86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pdf 자료는 Religion Online에 있으며 Harry and Grace Adams에 의하여 제공되었다. URL=[https://spiritual-minds.com/religion/philosophy/Niebuhr,%20Reinhold%20-%20Interpretation%20Of%20Christian%20Ethics%20\(Philosophy,%20Theology\)%20\(Cristian%20Library\).pdf](https://spiritual-minds.com/religion/philosophy/Niebuhr,%20Reinhold%20-%20Interpretation%20Of%20Christian%20Ethics%20(Philosophy,%20Theology)%20(Cristian%20Library).pdf) (최종접속: 2020년 6월 3일).

22)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73.

23) Ibid.

24)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31.

25)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40), 185.



다고 니버는 꼬집는다.<sup>26)</sup>

지금까지 필자는 자연 과학과 사회 과학, 그리고 순수 과학 또는 응용 과학의 큰 구분 없이 니버가 사용한 ‘과학’이라는 개념을 정리하여 과학의 유용성과 한계를 짚어 보았다. 특히 과학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나 순수 과학의 깊이 없이 오히려 자연과 인간을 지배하는 과학의 경향성에 대하여 니버가 지적한 부분을 강조하여 보았다.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과학의 시대에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비적인 검토가 되었다고 본다. 이제 과학의 시대에 니버가 제시한 신앙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 Ⅲ. 과학의 시대에 니버가 제시한 종교의 이상은 무엇인가?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종교계의 대처는 큰 틀에서 과학과의 협조, 아니면 갈등의 두 방향으로 나뉘었다. 종교의 특성상 집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시하는 과학의 관점과는 처음부터 충돌의 여지가 많았다. 대부분의 종교계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공중 보건 행정 정책에 협조하는 견해이었지만, “믿음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컸다.<sup>27)</sup> 근거리 접촉으로 확진자가 늘어나자 점차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의 위생이 종교계 내에 합리적 대

26)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78.

27) 한국의 경우 보수 교단 일각에서 코로나19의 접촉성 전염의 특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초기에 있었고, 세계 여러 종교의 예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 양정우, “세계는 ‘코로나 전쟁’ 속 종교 집회 콜머리,” 「연합뉴스」 2020.04.03., 2020년 5월 19일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3134200005?input=1179m> 참고.

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학에 근거한 공공 영역에서의 방역 지침과 집회를 중시하는 종교적 가치와 긴장 관계는 여전하다. 이런 맥락에서 니버의 관점은 과학과 종교의 가치 척도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한다고 본다. 니버는 과학과의 거리 두기를 통하여 종교의 유의미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각각 과학과 구별되는 종교의 특성, 종교관이 제시하는 인간의 의미, 그리고 종교적 유의미로서의 ‘신화’에 관한 것이다.

첫째, 니버에게 종교는 ‘초과학적’인 것이다. 니버는 현대 과학(Modern Science)과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과학은 모든 것들을 “삶, 실재, 그리고 경험의 다양한 층”에서 복합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반하여 종교는 그것들을 “전체적인 의미의 세계”로 통합하려는 데에 있다고 정의한다.<sup>28)</sup> 니버는 화이트헤드(Whitehead)를 인용하면서 종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종교는 텅없이 지나가는 것들 그 너머, 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비전이며, 실재이면서도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 가능성이 멀어 보이지만, 현재 마주친 가장 위대한 [그런 것], 스치는 모든 것에 의미를 주지만, 그러나 알 듯 말 듯 최종의 선을 소유한 것 같지만, 아직 미치지 못한[그런 것], 궁극적인 이상이지만 여전히 희망이 없는 탐구와 같은 그런 것이다.<sup>29)</sup>

이와 같은 니버의 관점은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궁극의 의미를 종교

28) Reinhold Niebuhr,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The Hazen Pamphlet, USA, 1945), 11.

29)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40), 201. 니버의 화이트헤드(A. N. Whitehead) 인용은 다음과 같다. A. N.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267.

가 과학과 같은 방법론으로 파악하려는 시도 또한 잘못된 것임을 염두에 둔다. 니버는 과학이 궁극적인 의미를 준다고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며, 종교가 과학의 시대에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를 이성적으로 일일이 설명하는 것 자체도 틀린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신학은 일종의 “서투른 과학”(bad science)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sup>30)</sup>

니버는 과학의 시대에 과학과 같은 합리적인 방법론을 신앙의 체계에 적용하려고 하였던 ‘근본주의’나 ‘정통주의 기독교’, 그리고 ‘자유주의’의 관점에 대하여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과학의 시대에 근본주의자들(Fundamentalist)은 상상이 결여된 과학처럼 종교적 상상력이 없다고 비판한다. 근본주의나 과학 양자의 문제는 종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명 없이도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니버는 지적한다.<sup>31)</sup>

정통주의 기독교(Orthodox Christianity)의 문제는 “교리와 권위적인 도덕적 범규”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니버는 보았다.<sup>32)</sup> 즉 “하나님의 초월적 뜻을 교회법적인 도덕적 기준과 미숙한 동일시”는 궁극적인 의미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니버는 지적한다.<sup>33)</sup> “기독교 전통은 객관적인 과학에 의하여 발견되었다고 여겨지는 역사와 자연의 과정을 합리화하고 이해하였다.”<sup>34)</sup> 그렇게 되면 스스로 “빛의 자녀”라고 자칭하면서 거룩한 종교의 영역을 과학의 합리성으로 바꾼 그 결과는 “어둠의 자식”들이 된 것이 아니냐고 니버는 반문한다.<sup>35)</sup>

자유주의 신학은 과학의 발전을 너무 과도하게 수용하여 기독교의

30)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40), 220.

31) Reinhold Niebuhr,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 Clark and Colby, 1929), 141.

32)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3.

33) Ibid., 5.

34) Ibid.

35) Reinhol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London: Nisbet & Co., LTD, 1943), 17-18.

진리관 자체가 마치 과학적 이성의 세계관에 뒤처지는 인상을 받게 했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의 ‘신화’라고 하는 것은 “초-과학”(trans-scientific)이기 때문에 종교의 내용을 이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sup>36)</sup> 한편 가톨릭 또한 종교의 궁극적인 관점에 대하여 철학이나 과학으로는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제한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가톨릭의 권위체계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인간의 조직에 그 최상의 권위를 준 것은 문제라고 니버는 비판하였다.<sup>37)</sup>

이성의 시대에 종교는 과학으로 종교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겨 “서투른 종교”(bad religion)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는데, 이는 자연적인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과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종교의 궁극성을 파헤치려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sup>38)</sup> 이러한 결과는 일시적일 수 있는 자연적 인과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결국은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 예측하고 그것을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니버는 지적한다.<sup>39)</sup> 니버는 과학의 합리성이 자칫 종교의 중층적 해석을 대신에 하려는 것에 대하여서도 경계하였지만, 기독교 자체도 초과학적 영역의 내용을 합리성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나 문자주의, 또는 교권으로 대신하려는 기독교의 흐름에 대하여서도 비판하였다. 니버는 초-과학적 특성을 가진 기독교 정신의 회복은 믿음에 있다고 보았으며, 자칫 자연주의적 발견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낙관주의나 자연주의적 문화에 대한 대안은 진정한 신앙에 있다고 강조하였다.<sup>40)</sup>

둘째, 종교가 실제에 대한 중층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초하게 될 때 그 의미가 분명하여진다고 니버는 강조한다. 니버에게 인간이란 스스로 모순적이며 역설적인 위치에 놓

36)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6.

37)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216.

38)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33.

39) *Ibid.*, 42.

40)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8.

이게 된다. “인간은 위대하면서 보잘것없고, 강하지만 약하고, 자연의 한계에 제한되면서도 자유롭다. [인간은] 인간의 영과 피조성의 강함과 약함의 연합체”이다.<sup>41)</sup>

인간은 두 가지 점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차이가 있다. ...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 자연의 생존 본능을 자기를 추구하는 형태로 자연의 한 방향으로 흐르는 생존의 충동보다 더 가능성이 있게 하고, 보다 파괴적으로, 더욱 섬세하고, 그리고 한층 포괄적으로 바꾸며, 다른 하나는 인간은 자신의 보전보다는 더 큰 선을 구상할 수 있으며, 더욱 폭넓은 의무에 대하여 일시적이거나 응대를 하며, 그리고 더욱 일관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낀다.<sup>42)</sup>

니버의 이해처럼 인간은 유한하면서도 그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능성을 성취하려는 자유 의지가 있으면서도 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기에 오히려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를 극복할 가능성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질서와 의미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자 인간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근거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 실존의 불안전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극복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사랑이 끝내 죽음의 모순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다.<sup>43)</sup>

41)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129.

42)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94-95.

43)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129.

셋째, 기독교의 세계관은 그 이론적 틀에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으므로 과학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종교가 그 답을 줄 수 있다.<sup>44)</sup> 니버는 신비의 영역을 ‘신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신화’는 허구가 아니라 인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다.<sup>45)</sup>

참된 신화의 진면모는 실제로 깊이의 영역을 제시하며, 과학에 의하여 발견되고 분석된 인과 순서가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표층을 초월하는 본질의 영역을 지적하는 것이다. 과학은 세세한 현상들을 분석하고 나누고 분리하고,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을 그들의 관측 가능한 일련의 사건들의 조건에서 서로 연결시켜 자연과 역사의 표면만을 다룰 수 있다.<sup>46)</sup>

“종교적 신화는 존재의 궁극적인 기저이자 존재의 궁극적 성취이다”.<sup>47)</sup> 니버는 신화란 그 깊이를 다룰 때 상징과 같은 초-역사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과학과 같은 이성이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종교적 언어는 과학의 것과 다르다고 주장한다.<sup>48)</sup> 니버에게 신화란 히브리 종교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보지는 않았으며, 신화는 과학 이전의 세계관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특성은 여전히 초-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49)</sup> 니버

44) Ibid., 158.

45) 니버는 그의 사상 후기에 ‘신화’라는 개념보다 ‘상징’(symbol)이라는 개념을 보충한다. 그는 볼트만(Rudolf Bultmann)을 비평하면서 볼트만의 비신화론에서는 전-과학적(pre-scientific) 신화와 영구적인 신화에 대한 구분이 없다고 지적한다. 전-과학적 신화의 경우 “이미 알려진 것과 앞으로 알려질 것”을 나누어서 다루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니버가 강조하는 영구적인 신화는 “그 어떤 의미나 또는 실제”로서 “실존의 구조나 법칙 너머 역사와 자유의 영역” 안에서 경험이 가능한 히브리적 사고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5), 75.

46)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6.

47) Ibid.

48) Ibid.

는 종교적 신화의 깊이는 시와 같은 예술의 예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실재에 대한 궁극적인 속성은 과학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 시적 상상력이 과학적인 엄밀함만큼 필요하다.”<sup>50)</sup>고 강조한다. “예술의 기법은 왜 예술이 과학보다 종교와 더 가까운지 설명한다. 예술은 세계를 세계의 직접적인 관계의 조건에서 묘사하지 않는다. 예술은 과학의 분석처럼 관계의 전체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관계를 지속적으로 있는 것과 다르게 보게 한다.”<sup>51)</sup>

마찬가지로 “삶의 신비는 진보된 과학에 따라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보다 더 신비한 그 무엇이다.”<sup>52)</sup> 이처럼 신화로서 설명되는 종교의 깊이는 과학의 이성적인 틀로 설명할 수 없으며, 연대기적인 시간으로도 파악할 수 없다. “사건들을 어떤 유형으로 연결시키는 역사적 사건의 관찰자를 돕는 데에 있어서, 의미의 모든 보다 큰 틀은 과학보다 신앙의 구조[가 적절한데], 과학적 절차들은 구조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 구조는 단지 절차들의 결과일 수 없다는 점에서[한계가 있다].”<sup>53)</sup> 니버는 이처럼 신화가 과학보다 의미를 더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필자는 니버의 사상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여전히 유의미한 종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니버 신학의 특징은 과학과 신앙의 각 영역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과학에 대한 기독교 현실주의적 윤리관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특히 과학 공동체 안에서 작동하는 인간의 본성, 즉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망에 대하여 경계하며, 이미 과학주의가 자연을 정복하

49) 한국의 경우 보수 교단 일각에서 코로나19의 접촉성 전염의 특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초기에 있었고, 세계 여러 종교의 예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 양정우, “세계는 ‘코로나 전쟁’ 속 종교 집회 콜머리,” 『연합뉴스』 2020.04.03., 2020년 5월 19일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3134200005?input=1179m> 참고.

50) Reinhold Niebuhr,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121.

51)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6.

52) *Ibid.*, 149.

53)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119.

여 나아가는 과정처럼 인간에게도 그러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니버는 간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학의 시대에 종교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여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 IV.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 윤리

지금까지 필자는 앞에서 니버의 관점을 통하여 과학과 종교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현실주의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 염두에 두고 이론을 정리하여 보았다. 니버는 과학이 인간 실재의 궁극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며, 종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과학주의에 편승한 이성적인 노력도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니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익에 집중하는 인간의 본성을 간파하고, 과학 공동체나 종교 공동체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현대 과학이 표방하는 합리성의 한계를 직시하고, 과학의 이면에 팽배하여 있는 관료주의의 폐해에 대하여 지적하여 준다. 과학 기술주의나 과학 관료주의와 같은 개념들이 니버에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를 비롯하여 과학도 시대적 문화에 함몰되어 자본주의에 휩쓸릴 수밖에 없으며,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 대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 땅에서 대안으로 여기거나, 당시 국제 연맹(League Nations, 현 UN의 전신)이 분규를 해소할 수 있는 조직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sup>54)</sup>

54)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7.



니버는 과학 철학적 해석이 일관적이지 않아서 긴장 관계가 조성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역사에 대한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지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sup>55)</sup>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의미 물음에 실패하면 거짓된 기만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겨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자립”(self-reliance) 개념으로 이해하다가, 인간이 점차 과학을 통하여 자연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충족”(sufficiency)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니버는 본 것이다.<sup>56)</sup> 이와 같은 자기 충족이라는 의식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점차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 인간이 “근대적인 상업-산업”의 주체가 되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니버는 지적하였다.<sup>57)</sup>

과학적 합리성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주체라는 자리매김을 하면서 자연의 정복과 아울러 정치와 경제, 그리고 과학 전반에 걸쳐서 자기 충족의 개념으로 발전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관료 사회’이다. “관료 사회는 편견에서 벗어난다고 스스로 상상한다. 관료 사회의 이상은 추정이 없는 과학의 이상과 같은 것이다. 관료 사회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의 사회적 이상이, 이성이 발견하고 적용한 자연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원리들인 자연법의 이상이라고 믿는다.”<sup>58)</sup> “과학과 기술의 성취는 거짓된 만족으로 현혹한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망각하여 왔다.”<sup>59)</sup> 니버는 과학의 효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이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이다”의 경구처럼 인간이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유한한 인간임을 잊게 되면, 스스로 성취를 과대평가하

55)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6.

56)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69-70.

57) Ibid.

58)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34.

59) Ibid., 100.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sup>60)</sup> 이와 같은 니버의 지적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과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겸허한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과학 기술의 한계를 직시할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공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켜 준다. 니버가 관료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 관점은 종교조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니버는 현대의 과학 문명 속에서 초기 또는 중세의 기독교와 달리 현대의 종교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았다.<sup>61)</sup> 니버는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가 역사의 발전을 “신학에서 형이상학으로, 그리고 형이상학에서 과학”으로 발전하였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신학 자체가 형이상학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리적이고, 그리고 형이상학 자체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야 인정이 되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인식이 문제가 있다고 니버가 본 이유는 세상을 이해하는 권위의 자리에 과학이 위치하게 되기 때문이다.<sup>62)</sup>

니버는 이러한 흐름은 인간을 결과적으로 두 영역 중 하나에 속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해석하는데, 하나는 인간을 자연 과학의 영향력 아래에 두든지 아니면 “도덕적 또는 영적인 영역”에 제한하여 결국 이분법적으로 인간을 분리한다.<sup>63)</sup> 문제는 인간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와 윤리”의 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니버는 염려한다.<sup>64)</sup> 그렇게 되면 과학도 결국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나 “논쟁적이고 경쟁하는 실용적 정책의 합리화”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sup>65)</sup> 니버

60) Ibid., 125.

61) Reinhold Niebuhr,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4.

62)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51.

63) Ibid., 67-68.

64) Ibid., 68.

에게 “정의의 규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익, 인간 삶의 구조,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의 일상적 일련의 사건들로 이루어진 전체의 합리적인 조사의 결과이다.”<sup>66)</sup> 그러나 과학조차 불안정한 합리성을 표방하는 제도 안에서 최고 자리에 앉게 되면 종교를 포함한 사회 과학은 현실과 유리된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고, 현실 속에서는 사회적 합리성으로 여겨지는 정치나 윤리의 형식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의 시대에 종교 또한 사회 과학과 더불어 공적 영역에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니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신학의 책임에 대하여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니버는 세 가지 관점에서 신학이 실패할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하나는 신앙의 진리를 상관관계처럼 여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신앙의 진리를 문자주의로 변증하려는 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진리를 가톨릭의 자연 신학처럼 이성의 범주 안에 두려고 하는 시도이다.<sup>67)</sup> 니버는 철학조차 과학의 영향으로 신비의 주제를 인과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좁히는 바람에 결국 실존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실패하였다고 보았다.<sup>68)</sup> 신학도 과학적 세계관에 성숙하게 반응하지 못하여 두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는데, 하나는 반계몽주의 여파로 인과로 실재를 파악하려는 과학적 세계관에 대항하기 위하여 성서의 창조 개념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노선의 신학처럼 성서적 세계관을 진화적 과정으로 등치하여 버리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니버는 비판한다.<sup>69)</sup> 이와 같은 과학적 세계관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설명

65) Ibid, 이러한 주장을 위하여 니버가 인용하고 있는 문장의 출처는 “Liberating the Social Scientists in Commentary, October, 1947.”이다.

66) Ibid., 193.

67) Ibid., 165-167.

68) Ibid., 45.

69) Ibid., 47.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제1 원인(first cause)으로 여겨져서 과학적 발견에 의한 여러 원인 중의 하나일 뿐이고, 따라서 물질적 세계관에서 제1 원인과 신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것이며, 만일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에서와같이 하나님이 '부동의 동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생명력이나 진정한 창조주"라고 할 수 없다고 니버는 본다.<sup>70)</sup>

과학의 시대에 신학의 역할은 더욱더 분명하여진다. 과학은 초-신화적인 영역에 여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의 시대에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신학의 역할은 중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친 인간의 모습은 분명하다. 그것은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자연은 정복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며,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기 충족을 확인하는 자리에 인간은 서 있지 못하다. 미래의 안전이 경험과 계산에 따라 담보될 수 있다는 과학적 예측이 인간의 미래에 기준이 될 수 없다. 과학의 시대에 신학은 존재의 의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과학이나 합리성, 중상주의적 관료주의, 당파적 정쟁, 그리고 복지를 강조하는 경제주의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의 물음에 심오한 의미를 변증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 V. 결론

언뜻 코로나19와 연관된 과학의 흐름도 형식적으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 안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매우 많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와 연관하여 과학이 해야 할 공공의 영역에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백신 개발에 있어서 국내·국제 정치적 이해관

70)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1.

계를 넘어 초국가적으로 놓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팬데믹(pandemic)은 지구촌 모든 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백신 개발에 전념하여야 할 때, 오히려 그 책임 공방으로 국제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sup>71)</sup> 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난민들이 코로나19에 그대로 방치될 위험에 놓여있다.<sup>72)</sup>

또한 과학은 코로나19 치료를 놓고 공공 의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자본주의와 중상주의와 결탁하면 인간의 생명은 치료가 아니라 이익을 위하여 소비된다. 혈장 치료제, 렘데시비르(Remdesivir), 콜로로퀸(Chloroquine)과 같은 시약과 관련하여 연구소와 관련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한다.<sup>73)</sup> 그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폭증하여 병상이 부족할 때, 노인층이 치료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양상까지 보여준다.<sup>74)</sup> 무엇보다도 소위 포스트 코로나라 불리는 21세기에 과연 인류가 일상(normal)이라고 여겼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이성의 진보로 선두에 선 과학의 반성도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과학자와 과학 기술, 그리고 윤리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라인홀드 니버의 과학에 관한 통찰력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라인홀드 니버의 신학은 과학의 시대에 제3의 대안으로 여전히 신앙을 주제로 삼게 한다. 인간 역사의 발전에서 성취하여 온 과학의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고, 과학자와 과학 기술 공동체도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니버식의 기독교 변증은 종교와 정치, 경제, 그리고 과학에 필요한 의무론을 중시하

71)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결 구도가 가속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사실]세계가 우려하는 미·중 코로나 냉전,” 『경향신문』 2020.05.18., 2020년 5월 19일 접속,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80300005&code=9901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80300005&code=990101).

72) 강주희, “100만 명 밀집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 코로나19 발병,” 『아시아 경제』 2020.05.15., 2020년 5월 19일 접속, <https://www.asiaa.co.kr/article/2020051510521193833>.

73) “코로나19 치료제 둘러싸고 주가 ‘요동’ … 바이텍스 ↑·네이처헬 ↓,” 『BizFACT』 2020.05.15., 2020년 5월 19일 접속, <http://news.tf.co.kr/read/economy/1793745.htm>.

74) 김소연, “노인은 양보해’ … 日 코로나19 병실 부족 → 노인 치료 포기 강요,” 『한국경제』 2020.05.14., 2020년 5월 19일 접속,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51498307>.

게 한다. 니버식의 변증법은 합(synthesis)의 자리, 즉 문제를 해결하는 권위의 자리에 과학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징한다. 순수 과학에서 응용 과학으로, 철학에서 과학으로, 문자 주의에서 교권으로, 그리고 자연에서 인간 중심으로 흐른 역사는 새로운 수평적인 시간적 발전이 있었다 치더라도 깊이는 없다. 니버식의 기독교 변증법은 그 깊이를 헤아리는 궁극적인 질문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 놓는다.

라인홀드 니버의 신학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문제가 여전히 과학 기술주의에도 만연할 수 있다는 통찰력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니버는 현대사회의 문제가 관료주의 안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간파하였으며, 인간 개개인은 비도덕적이지만 관료 사회 안에서는 더 비도덕적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과학의 시대에 ‘도덕’과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sup>75)</sup> 현대 코로나19의 사안을 놓고 벌이는 국제 사회나 과학 공동체의 문제를 보면, 비도덕적 공동체의 일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코로나19의 문제를 놓고 벌이는 쟁투는 인류를 하나로 묶어 놓기보다는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의 이익이 우선되고, 정치에서는 코로나19에 당파적 분열과 치료의 우선순위를 놓고 연령 차별, 성 차별, 그리고 인종 차별이 난무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도덕적 인간과 집단의 분열이 현재 인류가 펼치는 서투른 드라마임을 기억하고, 기독교 공동체의 공적 직무를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니버는 종교를 포함한 사회 과학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한배호가 니버를 분석하여 결론에 다다른 것처럼 “지배자의 양심이나 그의 품성에 의존하는 정치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sup>76)</sup> 니버 신학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배호의 지적처럼 “21세기에 있어서도 기독교 현실주의는 국제적인 정의와 도덕성의 가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적어도 모든 인간의 제도나 인간 행위를 넘어 심판하는 초월적인 원리임을 강조

75)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31.

76) 한배호,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의 요체와 평가,” 『신학사상』 182 (2018/가을), 18.

하면서, 꾸준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는 주장에 동의한다.<sup>77)</sup> 코로나19의 치료를 놓고 인간에게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로, 바이러스 추적과 전염자 격리는 인간 이성과 과학적 결과를 여전히 욕망으로 이용하려는 우리 본성과의 격리이고, 백신 치료를 통하여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치료제의 기대는 지구 모든 구성원에게 이념과 인종을 초월하여 더불어 치료받는 공동체의 비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김재성의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자유로운 존재인데, 신이 되려고 하는 자유는 부패하게 되어 있다.”<sup>78)</sup>는 니버에 대한 통찰력을 이 시대 과학과 신학이 다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니버의 현실주의 윤리가 기독교 공동체에도 학문적 등대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라인홀드 니버, 과학, 신앙, 코로나19, 기독교 현실주의 윤리  
(Reinhold Niebuhr, Science, Faith, Covid-19, Ethics of Christian Realism)

논문접수일: 2020년 5월 20일 논문수정일: 2020년 6월 3일 논문게재확정일: 2020년 6월 20일

77) Ibid., 32.

78) 김재성, “예수의 비유에 나타난 개성화의 동기 -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 관점에서,” 『신학사상』 182 (2018/가을), 53.

## 참고문헌

- Niebuhr, Reinhold.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 Clark and Colby, 1929.
- \_\_\_\_\_.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Harper & Brothers, 1935.
- \_\_\_\_\_.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36.
- \_\_\_\_\_.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 \_\_\_\_\_.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40.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 \_\_\_\_\_.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London: Nisbet & Co., LTD, 1943.
- \_\_\_\_\_.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The Hazen Pamphlet, USA, 1945.
- \_\_\_\_\_.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 \_\_\_\_\_.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 \_\_\_\_\_.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 \_\_\_\_\_.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5.
- 김재성. “예수의 비유에 나타난 개성화의 동기 -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 관점에서.” 『신학사상』 182 (2018/가을), 신학사상연구소.
- 한배호.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의 요체와 평가.” 『신학사상』 182 (2018/가을), 신학사상연구소.



## 한글초록

이 논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집중하고자 한다. 과학과 종교적 가치에 대한 충돌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과학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을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신학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니버의 관점을 재조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니버는 현대 과학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지나친 낙관론을 금하였다. 이는 계몽주의적 이성에 대한 과도한 맹신을 경계하고, 종교의 근본적 가치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니버는 과학과의 거리 두기를 통하여 종교가 추구하여야 할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였다. 과학과 종교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당시 자유주의나 근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과학의 시대에 종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였다. 셋째, 니버는 기독교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공공 신학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니버 당시 과학 정치와 같은 개념은 없었지만, 니버의 사상에는 과학이 공공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 실마리를 제시하였다고 본다. 이와 같은 니버의 통찰력은 이 시대 기독교가 코로나19를 놓고 어떻게 과학을 이해하여야 할지 신학적인 방향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 논문의 한계는 니버의 신학에서 그가 이해한 과학의 문제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니버 신학의 중심인 인간과 도덕의 문제, 정치 윤리, 사랑과 정의, 기독교의 공공성, 신학의 비전, 그리고 니버식의 기독교 변증법에 대한 이론들은 세세하게 다루지 못하였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학과 종교와의 관계를 니버식의 관점에서 조명한다는 점을 밝힌다.

## Faith and Science in the Age of COVID-19 and Reinhold Niebuhr's Christian Realism

Kyoung-Dong Yoo

Professor, Christian Ethics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will concentr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faith in the post-corona age. The collision between science and religious values is not the focus, but the author will attempt to examine Christianity's viewpoint on science through the theology of Reinhold Niebuhr.

The perspective of Niebuhr is re-examined for the following three reasons. First, Niebuhr kept a distance from modern science and forbade overly optimistic views. This was done to practice caution against having excessive faith in Enlightenment reason and to emphasize the fundamental values of religion. Second, Niebuhr made clear which fundamental goals religion must pursue while keeping a distance from science. Not only did he clarify the purpose of science and religion, but he also helped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limitations of liberalism and fundamentalism. Third, Niebuhr provided the beginnings of a public the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realism. There was no concept of science politics in Niebuhr's time but Niebuhr's perspective provided a key for understanding the role that science should play in the public domain. Such insights in Niebuhr's thought can be expected to provide theological direction on how contemporary Christianity may approach science amid the COVID-19 pandemic.

This paper's limit is that it is concentrated on the issue of science as understood by Niebuhr in his theology, and therefore, issue of man and morality, political ethics, love and justice, public nature of Christianity, the vision of theology and Niebuhr's theories on Christian dialectic which are the center of his theology, were not discussed in detail. It mere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religion in the post corona era from Niebuhr's perspective.